

[한라산 '환상숲길'을 가다(6)]제2코스-② 남성대 제1대피소~5·16도로 수악계곡

과거·현재·미래가 어우러지는 제주시시험림

입력 : 2009. 05.07. 00:00:00



▲제주시시험림은 서귀포시 동홍~상효지경에 위치한 서귀포시험림과 남원읍 한남리 소재 한남시험림을 지칭한다. 이 두 곳의 시험림 면적이 2753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라산 환상숲길은 제주시시험림을 관통한다. /사진=강경민기자

'환상숲길' 국내 최초 국제산림인증 시험림 관통 동홍·상효·한남 등 2700여ha 산림경영 모델림 국제기준 숲 관리 모범사례...고품격 숲길 기대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숲'. 서귀포시 돈내코에 있는 난대산림연구소는 국제산림 인증을 받은 제주시시험림을 이렇게 표현한다.

한라산 '환상숲길'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산림인증을 받은 공간을 지난다. 환상숲길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숲이다. 바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가 관리 운영중인 제주시시험림이다. 제주시시험림은 서귀포시 동홍~상효지경에 위치한 서귀포시험림과 남원읍 한남리 소재 한남시험림을 지칭한다. 이 두 곳의 시험림 면적이 2753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귀포시험림은 서쪽으로는 시오름 북동쪽에서 동홍~상효지역을 아우르며 그 면적이 1550ha에 이른다. 해발 450~1000m에 위치한다. 이 곳에는 채종원과 지역시험림, 난대림보육, 장기생태연구림 등이 분포한다. 한남시험림은 남원~하례단지, 1203ha에 이른다. 해발 320~780m에 분포한다.

한남시험림은 사려니오름 등 사방이 오름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난대수종과 일제시대부터 집단조림된 삼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된 탐방로에는 삼나무 데크와 전시림, 모노레일, 휴식공간이 갖춰져 있어 최근 생태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삼나무 전시림에는 지난 1933년에 조림된 우량 삼나무와 편백숲이 대량 남아 있어 산림자원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 곳의 삼나무림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관리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다양한 하층식생이 자리잡아 '자원적 가치'와 '생태숲'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자림로~사려니오름에 이르는 이 곳을 무대로 5월중순부터 약 보름동안 사려니 숲길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과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전개중인 한라산 환상숲길 탐사도 서귀포시험림과 한남시험림을 모두 관통한다.

제주시시험림은 지난 2006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산림인증(FSC)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제주시시험림의 국제산림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1200여명(연인원)이 투입됐을 정도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국제산림인증은 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산림인증시스템이다.

제주시시험림이 FSC 국제산림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도 국제 기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한다고 인정받은 것이며 건강한 산림을 후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시시험림은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화가 이슈화된 기후변화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면서 탄소흡수라는 강점을 지닌 산림분야에 활발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시험림은 육림과 숲가꾸기에 있어 제주지역 숲의 모델이 되고 있다. 육림과 숲가꾸기는 제주시시험림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국내외 산림전문가들이 제주시시험림을 자주 찾는 이유도 '제주

숲'의 다양성과 숲 관리의 모범사례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라일보사와 난대산림연구소, 서귀포연합청년회가 '지구환경지킴이'를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수종인 붉가시나무 조림행사를 갖는 곳이 바로 제주시시험림이다.

/특별취재팀

[난대산림연구소]1965년 태동...산림유전자원 연구 박차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는 난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링을 개발하고 개량종자의 생산공급, 난대수종의 보육기술 개발을 주 임무로 한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대산림연구소는 1965년 4월 임목육종연구소 함양출장소 신설로 출발한 이후 1967년 남부육종장으로 개편했다. 1970년에는 육종장이 함양에서 서귀포로 이전했다. 현재의 골격을 갖춘 것은 1998년 임업연구원 제주임업시험장으로 개편하면서 부터다. 2002년에는 제주도가 관리중이

던 국유림 2741ha의 시험림에 대한 관리 이양을 받아 국제산림인증을 받은 제주시시험림 시대를 열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4년 1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로 재개편했다. 2006년에는 4급기관으로 승격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특별 기고]산림가치 부각 '치유의 숲'으로 발전

미래 산림탐방문화 수요에 대비..지속가능 산림경영 시험림 구축



난대산림연구소는 시험림 2753ha를 대상으로 산림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국토 녹화를 주창하던 때인 1968년도에 난대산림연구소는 현 위치(서귀포시 상호동 1253번지)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조림할 수 있는 삼나무,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 주요 경제 조림수종에 대한 개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250ha의 채종원을 조성하고, 1978년부터 2008년까지 10만ha분의 조림용 개량종자를 공급함으로써

국토녹화에 기여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림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구상나무 등 848종 1만337개체의 종자를 수집하여 장기저장 하고 있다. 종자저장 외에도 삼나무, 편백, 왕벚나무 등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난대수종들을 현지 외 보존원에서 보존 하고 있어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남쪽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수종을 도입하여 적응성 시험을 하는 등 임목육종연구 사업에 초석을 놓음으로써 난대수종의 신품종 육성이 태동될 수 있었다.

유전, 육종을 통한 수종개량에 총력을 쏟아 오던 연구소의 임무가 2002년 시험림(2741ha)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과거의 연구사업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한 바탕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시험림을 통해 국민을 위해서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고 경영해 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시험림을 체계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하였다.

난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한라산에 해발고별로 산림환경생태를 관찰하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구시험지를 선정하여 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수집하지 못한 산림유전자원을 전수종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미래의 산림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한다.

2006년 3월 국내 최초로 FSC로부터 국제산림인증을 취득한 이후 FSC가 제시하는 기준과 지표에 따라 시험림을 경영해온 결과 시험림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찾아가고 싶은 숲으로 변화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시민이 직접 숲을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통해 산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경영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특히 한라산은 2007년도에 UNESCO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세계인의 유산으로 가치를 평가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라산을 덮고 있는 산림자원이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보다 전문화된 산림생태 탐방 문화를 유도하기위한 탐방로 확장, 그리고 산림의 효용가치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치유의 숲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미래 산림 수요 창출에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메카로서 시험림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변광옥/난대산림연구소장>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